



주요 논문 초록

1997년도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기술 지원사업 대상 사업장의 산업보건 실태

저자 : 김지용, 백도명, 김은희, 하은희, 김선민, 박정선,
전경자, 정혜선, 박혜숙

출처 : 산업의학회지 1999;11(1):33~51

소규모 사업장의 정의는 자본금, 생산능력, 매출금액 및 이익금 등을 근거로 구분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근로자 수에 의해 구분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1985년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를 소규모 영세사업장으로 구분하였으나, 1994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세계보건기구 주최 '산업보건에 관한 세미나'에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라고 정의한 바 있어 현재는 일반적으로 50인 미만을 소규모 사업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1995년 현재 총 156,133개소로 전체 사업장 178,051개소 중에서 87.7%를 차지하고 있으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수는 총 2,415,233명으로 전체 근로자수 6,167,596명 중에서 39.2%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업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50인 미만 규모의 사업장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연도별 규모별 사업체 수 및 근로자수를 살펴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수는 1980년 85.6%에서 1995년 현재 87.7%로 증가했으며, 근로자수도 1980년 26.2%에서 1995년 현재 39.2%로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소규모 사업장은 그 수가 많고 형태도 다양하여 가내 수공업에서부터 하이테크 산업까지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지역적으로도 일정한 공단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다. 또한 대부분 개인 기업으로서 사업주 자신이 생산, 판매, 구매, 회계 등 전반적인 경영을 수행하며 무등록 사업장이 많은 등 경영기반이 취약하다. 그리고 대부분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으로부터 하청을 받고 있어 수익이나 생산성 측면에서 취약하며, 최근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종의 하청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작업환경이 열악하여 산재발생률이 높은 반면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적고 재원이 영세하여 작업환경개선이 어려운 형편이다. 이와 함께 사업장의 임금수준이 낮아 학력, 지식수준, 사회경제적 조건, 신체적 조건 등이 취약한 근로자가 취업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에서 흡수하지 못한 많은 근로자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 안정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에도 기여하고 있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영세사업장은 법이나 행정부의 지도·감독에서 벗어

나 있다. 또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유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고려하여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각종 사업주의 의무조차 면제해 주고 있어 보건관리의 사각지대로 존재해 왔다. 최근에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규제 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안전보건관계자 선임을 비롯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각종 기준을 대폭 완화 하자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소규모 사업장의 보건관리가 더욱 위축될 지경에 처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보건 실태를 일반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결과, 산업재해 발생 상태를 통해 살펴보고 이를 각 업종별 상태로 분류 비교해 보았다. 1997년도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기술지원사업 대상으로 결정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5,080개중 조사 가능한 4,81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58개 지원기관(병원, 협회, 연구소 등)의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기술지원사업 담당자로 하여금 담당 사업장의 소규모 사업장 실태조사표를 작성하게 하였다. 실태조사표의 내용은 근로자수, 사업장 산재 성립 번호, 소재지, 1995년도 1996년도에 실시한 일반 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 결과, 작업환경측정 결과, 산재 발생 상태 등으로 되어 있다. 1995년, 1996년도 일반질환 및 특수검진 결과는 각 질환별로 대상근로자수, 유소견자수, 요주의자수 및 각 분율을 구하여 업종별로 비교하였으며,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유해인자별로 측정건수, 초과건수를 구하여 업종별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각 지역에 따라서 주된 업종이 달랐으며 이에 따라 산업 보건의 문제(직업병이나 일반질환의 발생율, 취급 유해물질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업종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면 일반질환의 경우 「도금업」, 「섬유, 섬유제품제조업」, 「금속재료제품제조업」이 주된 문제가 되었다. 반면 직업병의 경우 「금속제품제조, 가공업」, 「금속재료제품제조업」 등에서 문제가 되었다. 작업환경적 측면에서는 「섬유, 섬유제품제조업(직물업)」, 「도금업」, 「인쇄업」에서 문제가 되었으며, 산재발생 측면에서는 「화학제품제조업」, 「금속재료제품제조업」 등에서 문제가 되었다. 반면 「자동차제조 및 수리업」이나 「기계기구제조업」, 「전자제품제조업」의 경우 대상 사업장 중에서 수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산업보건적 측면에서의 중요도는 낮은 소견을 보이고 있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너무 규모가 작아 단기간의 수치를 통해 보건관리사업을 평가하기 힘들다. 그러나 이를 업종별로 분류하여 비교 검토하는 것이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사업을 계획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각 지역적(보건지원 기관이나 지도원별)인 업종별 분포의 특색에 따라 개별적인 전략 사업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과거 행정 편의적인 유소견자 수나 허용농도 초과 사업장수의 관리에서 더 나아가 보건관리를 위한 요주의자 수와 감시 농도(허용농도의 50%) 초과 사업장수에 대한 통계적 처리 및 관리가 필요하다.

(제공 : 김지용)

망간에 폭로된 용접작업자들의 신경행동검사 수행능력

진영우 · 김양호 · 김규상 등

방광암과 Glutathione S transferase mu(GSTM1) 유전적 다형성에 관한 메타분석

고상백 · 차봉석 · 박종구 등

한국인의 심근 조직내 카드뮴 농도의 참고치

박정덕 · 임헌방 · 최병선 등

1997년도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기술 지원사업 대상 사업장의 산업보건실태

김지용 · 백도명 · 김은희 등

철강업체와 용접봉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생산직 근로자의 직업성 요통 유병률과 관련 요인

임현술 · 김수근 · 김덕수 등

한국 일부지역의 이주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산업재해실태 조사

김정아 · 최재욱 · 김해준 등

한랭작업 근로자들의 건강위해에 관한 연구

박호추 · 정설미 · 문덕환 등

여성은행원에서의 스트레스 관련요인

정경태 · 장성실 · 이강숙 등

합성피혁제조업체 근로자들에 있어서 N-methylformamide 배설속도에 관한 연구

김기웅 · 최병순 · 강성규 등

